

오랜 시련에

(군중의 합성)

1. 오렌
2. 저렌
3. 오렌

오르거기 날을
러용 밝
외음히
치리
는라
군함모
중성든
틀선하
의포느
함하남
성리자
이라녀

하늘을 날
우리라
그날
다다
그시
주여
지어
치진
계
버
좁
여
렸
은
기
네
넋
에

산슬영
에위스
한없
는은
강용
자유
은
블
와
유
지
평
유
니
화
히
게
로
호
스
네
서

(후렴)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
지
시
여

당신
의
뜻
이
리
면
하
는
끝
까
지
따
르
리
라

아주 작은 어린양 한 마리를

류형신사 신원정곡 (원제: 그의 나라 온 땅에)

아주 작은 어린양 한 마리를 - 애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 녀

역히 받으시는 - 하나님 -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 거 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

일꾼들이 쓰디쓴은 버린들로 - 머릿 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 가장 낮은이들을 - 하늘 높이 올려서 - 하늘

아래 모든 견제 부끄럽게 하시네 -

이 도록 - 놀라움 - 그의 나라 - 온 땅에 -

이 도록 - 아름다움 - 그의 나라 - 온 땅에 -

<p>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 주소서. ○ 당신께서 명하신 것 가르쳐 주소서.</p> <p>74 내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기에 ○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를 보고 기뻐하리이다.</p> <p>75 주여, 당신의 판결은 옳습니다. ○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 당신의 진실하심 때문이옵니다.</p> <p>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주소서.</p> <p>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p> <p>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주소서. ○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p> <p>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주소서.</p> <p>80 이 마음이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소서.</p> <p>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p> <p>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 언제 나를 위로해 주시렵니까?</p> <p>83 나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으나 ○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p> <p>84 당신의 종이 살날이 많지 않사오니 ○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p> <p>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 내 앞에 함정을 팠습니다.</p>	<p>86 당신이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p> <p>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 나는 당신의 계명을 버리지 않으리이다.</p> <p>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p> <p>89 주여, 당신말씀 영원하시고 ○ 변함없이 하늘에 있습니다.</p> <p>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습니다.</p> <p>91 모든 것이 당신의 종들이오니 ○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습니다.</p> <p>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더라면 ○ 이 몸은 고통속에서 죽었으리이다.</p> <p>93 계명들을 주시어 나를 살려 주셨으니 ○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p> <p>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주소서. ○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p> <p>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p> <p>96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는 줄 아오나, ○ 당신의 계명들은 완전하시옵니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루가(누가)복음 8:16-25

<p>"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p>	<p>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p> <p>●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